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

담배라는 것은 기호식품으로서,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단, 옳지않은 판단을 내리기 쉬운 학생들에게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에는 니코틴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피우면, 가끔 폐암에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흡연은 기형아출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우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기사도 읽은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담배를 피우는데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담배를 피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피우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겠죠.

이와 같은 것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울때는, 시간과 장소를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랑 전차, 회사등의 공공장소에서는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공공장소에서는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기관지 천식이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관지가 나쁜 사람에게 있어서 담배연기와 같은 것은, 어쩌면 치명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샌가 서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와같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허락되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라면, 자유만을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계기로 자신의 흡연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